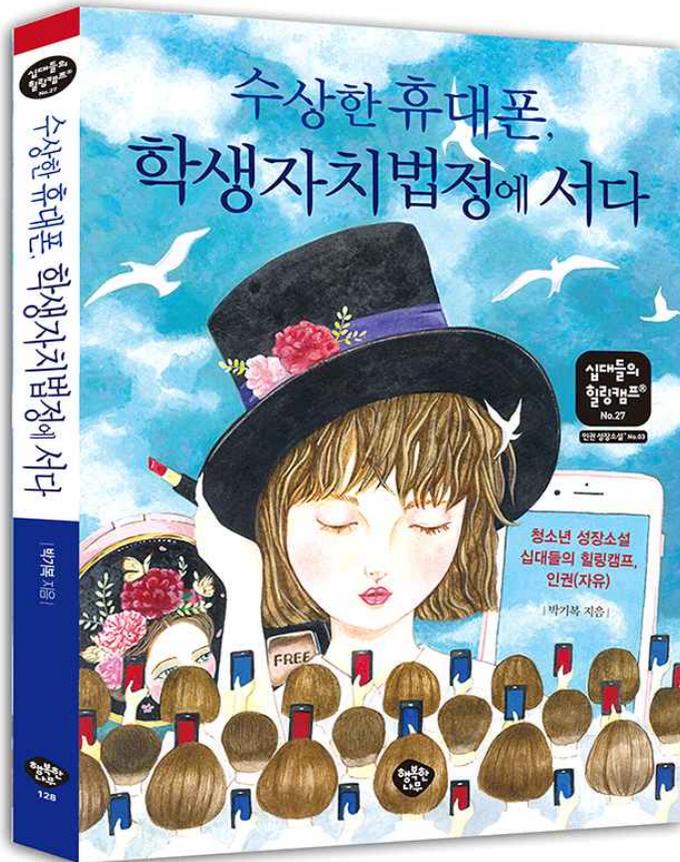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수상한 휴대폰, 학생자치법정에 서다

청소년성장소설 침대들의 힐링캠프, 인권(자유)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192쪽

주제어 : #인권 #자유 #학생자치 #별점 #휴대폰 #청소년화장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구 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거침없이 쓰기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4차시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차시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읽기 후 활동	6차시	• 내용 이해하기 • 나와 연결하기 • 타인 이해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 토론하기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 생각 확장하기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논술문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 논술문 쓰기 준비 • 논술문 쓰기	• 편하고 쉽게 논술문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 논술문 공유하기	• 논술문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앞표지] 표지 그림을 본 느낌을 적어보세요.

2. [앞표지] 여러분에게 휴대폰은 어떤 의미인가요?

3. [뒤표지] "우리가 원하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	#헌법재판소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똥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똥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1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 너는 해야 한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1부_1. 선생님은 벌점 기부천사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1부_2. 나는 샌드위치다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1부_3. 순박한 희생자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옅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옅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32~36쪽에 나온 늘품중학교 별점 규정을 읽고 난 뒤에 소감을 적어보세요.

늘품중학교 별점 규정 공고(개정)

늘품중학교 별점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하니 규정을 준수하여 학생다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별점 규정은 계도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합니다.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토박토박 움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사귀는 사이끼리 하는 애정표현을 어느 수준까지 학교에서 허용해야 할까?

이수혁과 임나은은 시종일관 당당하게 사랑할 권리를 외쳤다. 도대체 손잡고 다니는 게 왜 불건전한 이성교제냐면서 따졌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도 웃음이 터져서 딱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별점 감점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사귀는 사이끼리 하는 애정표현을 어느 수준까지 학교에서 허용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의견은 갈렸지만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동의했다.

-126쪽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에필로그|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1. 교실을 디자인하다		
에필로그 2. 스스로를 디자인하다		
에필로그 3. 행동을 디자인하다		
에필로그 4. 다시 열리는 학생자치 법정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기린대화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직접 사용해 보세요. 사용한 뒤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보세요.

“애들아! 너희들이 떠들고 집중 안 해서 속상해.”
나는 학생회 리더십 캠프에서 배운 기린대화법을 사용했다.
“회장, 너 미쳤냐?” “어휴, 오글오글.”
애들은 기겁을 하면서 조용해졌다. 기린대화법을 쓰면 마음이 통해서 잘 들어준다고 했는데, 어째 예상과 달리 내 말투에 놀라면서 조용해졌다. 어쨌든 나는 배운 대로 계속 기린대화법을 쓰기로 했다. -175쪽

생각 확장하기

이제껏 교실의 풍경은 학교나 선생님들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우연히 만들어졌죠. 좋은 교실, 마음에 드는 교실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운에는 더더욱 맡기지 말고 스스로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요? 늘품중학교 학생자치법정처럼 스스로에게 적합한 규칙을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자, 급우 여러분! 오늘은 3학년 3반 자체 학급규칙을 만드는 학급회의입니다. 소식을 전해 들어서 다 알겠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율로 생활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생활규칙이 무엇인지는 인쇄물을 이미 읽어 보았으니 다 아시죠? 그럼 우리 반 자율규칙은 어떻게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발표할 때는 꼭 존댓말을 써 주시고,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질문1】 교복을 비롯한 복장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스스로 만드는 규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복 폐지 주장도 가능해요)

- 우리 학교 복장 규정이 가혹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학교에서 알아서 생활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반바지에 반팔 옷이되면 편하잖아요. 요즘 날씨에 춘추복이면 적당한데, 체육복과 생활복을 뒤섞어 입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2는 계속해서 옷이 예쁘지 않다고 했는데 그건 각자 주관이죠. 모든 사람 취향에 다 맞는 예쁜 교복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우리 학교 교복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복을 없애자고 주장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안 예뻐서 고쳐 입고, 뒤섞어서 입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학교는 왜 다닙니까? 교복은 서로 딱 맞춰 입어야 보기도 좋고, 규율도 잡혀 보입니다. (116쪽)
- 똑같은 복장, 똑같은 규율, 똑같은 생각! 그게 바로 전체주의 교육입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습니다. (116쪽)
- “저는 교복, 체육복, 생활복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입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학교 복장이면 아무 옷이나 뒤섞어 입어도 되게 합시다.”
“자유롭게 입는 건 좋은데 뒤섞어 입는 것은 반대입니다. 체육복은 체육복끼리, 생활복은 생활복끼리 입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섞어 입으면 이상해 보입니다.” (176쪽)

【질문2】 화장, 두발과 같은 외모와 관련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저는 초5 때 처음 화장에 맛을 들였습니다. 초6 때는 피고인 3처럼 맨얼굴로는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고, 화장이 지워질까 봐 체육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면서 엄마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싼 화장품을 이것저것 많이 사고 싶은데 엄마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비싼 화장품이 생기면 학교에 와서 애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하느라 아침에 긴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숙제할 시간에 거울만 쳐다본다면 구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화장법 영상을 찾아보느라 늦은 밤까지 잠을 안 잔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화장을 하면 할수록 제 맨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맨얼굴을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스스로 책망하며 나중에 꼭 성형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중1이 되면서 제 화장품 욕심은 더욱 커졌고, 화장 관련 영상을 밤늦게까지 본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서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크게 다투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엄마는 화장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화장뿐 아니라 영상을 보다가 걸리면 용돈도 다 끊고, 다른 원하는 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대들기도 했지만 워낙 엄마 결심이 확고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좋은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단 잠자는 시간이 늘었고, 숙제나 공부에 집중할 시간도 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비싼 화장품을 자랑할 때 가정 형편으로 비싼 화장품을 장만하지 못해 부러워하며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을 안 하면서 제 타고난 얼굴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당당한 제 자신이 저는 좋습니다.

학교 규정은 기초화장은 허용하고 색조화장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학교 규정은 학생들 처지와 욕구를 인정해서 기초화장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저는 학교가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교과목 공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학교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123~124쪽)

“저는 화장은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화장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도 화장을 모두 허용하면 좀 그렇습니다.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상한 화장은 안 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여학생 애들, 아니 여학생 급우들을 보면 얼굴을 하얗게 떡칠을 해서 다니는데 보는 사람도 좀 생각해 주세요.”

“교실에 화장품 냄새가 심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을 많이 하면 공부에도 안 좋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화장이랑 공부랑 무슨 상관이라고.”

(176~177쪽)

【질문3】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휴대전화 사용 규정은 반드시 바뀌야 합니다. 어차피 방과 후에는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씁니다. 휴대전화는 우리 생활과 떼어 수 없는 기기입니다. 우리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무절제하게 사용하지 않는 절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짚고 풀어 주고,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자유롭게 쓰게 하고 자율로 통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133쪽 -

【질문4】 과자 및 간식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과자는 허용하는 거죠?”

“허용해 주면 아무나 마구 먹을 겁니다. 다들 알겠지만 전에 어떤 급우가 조리품을 가져왔는데 장난이 벌어지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과자 안 들고 오는 급우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배고픈데 왜 먹지 못하게 합니까?” “깨끗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이제까지 몰래 먹는 걸 봤는데 깨끗하게 안 먹었잖아요? 늘 흘리고, 지저분하게 먹었으면서.”

(177~178쪽)

【질문5】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해 보세요.

제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달라요. 저는 별점 항목에는 없지만 정말 문제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힘든 친구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남들 몰래 뒷말하기, 좋은 말을 해 줘도 되는데 괜히 서로 깎아내리기,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데 협동하지 않기, 약한 애들을 골라서 근거 없이 혐오하기, 은근히 따돌리기, 물건 빌리고 안 돌려주기, 다른 애 물건 함부로 만지기 등등! 이런 일들이야말로 꼭 생활지도를 해서 바뀌어야 하지만, 별점을 주기도 어렵고, 별점으로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171쪽)

토론하기

【토론주제】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벌점제는 인권침해인가?

(가)

“벌점을 주면 받아야지 뭐. 사랑은 엄연히 인권이고, 사랑에 벌점을 주는 것은 인권 침해야. 사랑하다 구박을 받더라도 나는 내 인권을 마음껏 누릴 거야.”

나은이 말에 비장미가 흘러넘쳤다.

“그래, 마음껏 인권을…”

인권을 누리라는 말을 하려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인권? 인권 침해?’

나는 생활지도위원회 주도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단속과 벌점을 떠올렸다. 규정이 깐깐하고 단속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고 여기기는 했으나,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런데 나은이 같은 모범생조차 답답하게 느낄 정도면 자유분방한 애들은 어떻게 느낄지 뻔했다. 더구나 3학년들이야 생활지도위원들과 가까우니 그냥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1·2학년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3학년보다 훨씬 심할 듯했다. 어쨌든, 새롭게 시행되는 단속 규정과 벌점 부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인권부 첫 사업으로 새로운 벌점 규정과 이로 인해 억울하게 벌점을 받은 사례를 조사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44~45쪽

(나)

우리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 보기로 했다. 아무도 화장을 안했다. 옷은 완벽하게 갖춰 입었다. 교실은 깨끗했고, 떠들지도 않았다. 수업 전에 휴대전화는 다 냈고, 교과서와 공책과 인쇄물을 가지런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선생님이 들어오고 10분 동안 우리는 완벽한 모범학생이 되었다. 선생님도 의아해할 정도였다. 10분 후, 우리는 모조리 잠을 자 버렸다. 벌칙 규정에 잠은 없다. 잠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 벌점을 주지 못한다. 하도 억울해서 우리끼리 벌인 작은 저항이었다. 과연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항의였다. 단속과 벌점이 지향하는 목적이 학업 향상과 인격함양인지, 아니면 억압과 복종인지…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던 선생님은 우리가 왜 그런지 알아차렸다. 선생님이 한참 동안 우리를 나무랐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말이 안 통하자 선생님은 가장 만만한 애를 골라서 일부러 자꾸 깨웠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용기 있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작은 저항을 계속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갑자기 ‘교사 지시불이행’으로 벌점 10점을 그 애한테만 줘 버렸다. 우리가 벌인 소심한 저항은 지시불이행이라는 강력한 벌칙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나는 선생님이 취한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시불이행으로 벌점 10점이라니, 그것은 유희업소를 출입했을 때나 음주와 흡연을 했을 때 받는 벌점과 같다.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이 유희업소 출입이나 음주흡연처럼 나쁜 일인가? 이제는 수업 시간에 졸려서 잠이라도 몇 번 자면 학교생활이 엉망이 될 각오를 해야 할 판이다. 잠 때문에 강제전학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잠이 제일 무서운 일탈이 되고 말았다.

- 70~71쪽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참고자료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선언문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잔악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알려지자, 이를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6조 :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생각 확장하기

【질문1】 올바른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상점이 많다고 착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점을 안 받았다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준석이
 가 평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별점과 상점만 보고 준석이 착하다고, 준석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가 있으세요? 성욱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는 욕
 을 해 보라고 가르쳐 줘도 못하는 애예요. 이제까지 싸움 한 번 안 했고, 누가 욕을 해도 그냥 허허 웃어넘
 기고, 남이 먼저 잘못해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애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부탁한 물건이 아니었다면
 준석이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 물건이었기에 준석이 밟지 못하게 하려고 말리다
 가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고요. 쌤은 성욱이를 몰라요. 저는 성욱이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남자애들이
 전부가 나쁜 짓을 해도 마지막까지 절대 동참하지 않을 애가 성욱이에요. (95쪽)

휴정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2차 법정에서 나왔던 피고인 8, 정나혜 학우가 이태경
 생활지도위원을 놀리고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태경 생활지도위원도 한꺼번에 많은 별점
 을 주고 부모님과 갈등까지 빚게 한 것에 대해 정나혜 학생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두 학생이 서로 사과하
 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속과 별점, 도망과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사과, 반성과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4쪽)

Q1. 별점제와 같은 처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은 없을까요?

Q2. 이해와 사과, 반성과 약속으로 학교 규칙이 유지된다면 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2】 자율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최미경 쌤! 내가 정말 묻고 싶은데, 쌤은 정말 중학생들끼리 자율에 기초한 질서가 가능하다고 확신하세요?”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자율에 기초한 질서가 가능하냐고 묻지 말고,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야죠.”

“당장 학업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학교가 개판이 될 텐데 어떻게 말입니까? 이상은 좋지만 순진한 발상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다 하게 두자고 했어요? 몇몇 규칙 정도는 스스로 만들고 지키도록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학생자치법정 배심원들도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실패할 게 뻔해요.”

“맞아요. 실패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서 실패를 경험하기보다 **학교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학생들은 실패하면서 배우고, 실패로 벌어진 일은 선생님들이 뒷감당하고! 저는 **학생들이 저지른 실패를 뒷감당해 주는 사람이 교사**라고 생각해요.”

189~190쪽

Q1.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Q2.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3】 1부 제목은 ‘너는 해야 한다’이고, 2부 제목은 ‘나는 원한다’입니다. ‘해야 한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원한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생각소.**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나요? 아니면 ‘네가 해야 한다’에 이끌려 사나요?

논술문을 쉽게 쓰는 방법

- 논술문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입니다. 내가 설득하려는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릅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논술문을 쓸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내가 설득할 대상이 불분명한 채로 논술문을 씁니다. 그러니 논술문을 쓸 때 재미가 없고, 설득해야 할 간절함이 없으니 논리도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설득할 상대방을 떠올리며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의견인지, 왜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네가 틀렸으니 고치라는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러니 좋은 논술문이 나올 수가 없지요.
- 그래서 논술문을 잘 쓰려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 동생, 담임, 교장 등 설득할 대상이 분명하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뚜렷해집니다. 그다음은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불만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나면 논술문 쓰기는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놓고 쓰라고 해서 논술문 안에 상대방의 호칭을 꼭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 다음으로 상대방의 특성에 맞게 설득할 논리를 준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글을 읽을 상대방을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그 사람을 설득해내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설득 논리)을 찾아야 합니다.
- 논술문을 쓸 때 대다수 학생들은 자기 생각만 쪽 늘어놓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설득할 상대방은 그 논리만 듣고 바로 설득이 될까요? 아니죠. ‘내 생각은 이래요’하고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지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논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인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따져보며 그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재반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글의 순서가 대략 나옵니다.
 - 1) 내가 왜 설득에 나서는지, 내 불만이 무엇인지 등이 글 첫머리가 됩니다.
 - 2) 내가 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 3)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정리합니다.
 - 4) 상대의 논리를 재반박하면서 내 주장을 펼칩니다.
 - 5)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적절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 흔히 논술문의 형식을 서론-본론-결론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술문의 형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형식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득을 하는 데 상대방의 특성이나 내 주장에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 논술 실력은 ‘왜Why?’와 더불어 자랍니다. 끝없이 ‘왜?’하며 묻는 질문 속에서 논리적인 사고력이 커나갑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왜?’란 질문을 던져보세요. 제대로 끝까지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나쁘다’는 신념에 끝없이 ‘왜?’를 던져보세요.
ex. 거짓말은 나쁘다. → 왜 나쁜데? → 거짓말을 하면 남이 나를 못 믿는다. → 왜 못 믿는데? → 당연히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은 안 믿지. → 못 믿는다고 왜 문제인데? → 그럼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어렵잖아. → ……
-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자기 행동이나 선택을 왜 하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만약 일상에서 차분히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다보면 논리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논술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논술문 예시는 『중학생을 위한 논술 만점공부법』(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논술문 쓰기 준비

준비사항① 내가 설득할 대상과 요구사항/불만사항 _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설득할 대상 :

나의 요구사항 또는 불만 :

준비사항② 설득 대상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이유 (근거) *상대방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설득 논리 준비

준비사항③ 설득 대상이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할 만한 논리를 정리

준비사항④ 상대방의 반대 근거를 재반박하는 논리를 준비

논술문 공유하기

※ 논술문을 공유할 때는 자신이 설득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논술문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논술문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